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36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자원봉사자분들의 숭고한 마음 감사합니다"

■ 2018 충청북도 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충북도의회의장 ·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등 150여명 참석

우수자원봉사자 18명 표창… 자원봉사 홍보 · 참여 활성화 분위기 조성

2018년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가 10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 정성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단체장,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제 13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홍보와 참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협의회 연합봉사단 소속 스마일봉사단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 증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충청북도지사 표창 6명, 충청북도의회의장 표창 6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6명 등 총 18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중 최다 실적 등록 기준으로 뽑힌 10개소에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이 증정되어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에 헌신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오늘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며,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따뜻하고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수상한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지사 표창

김순복(충주종합사회복지관), 박길화(단양장애인복지관), 안순덕(스마일봉사단), 이영숙(증평종합사회복지관), 지옥녀(나우리회), 신백아동복지관

▲ 충청북도의회의장 표창

구영회(충주종합사회복지관), 김흥희(신백아동복지관), 신경화(성덕원), 유성희(산남종합사회복지관), 이순남(나우리회), 장영금(청주내덕노인복지관)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김재화(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박미영(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박은옥(청주내덕노인복지관), 박종득(스마일봉사단), 이진경(충주종합사회복지관), 케이티앤지충북본부

▲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 증정 명단

로뎀나무요양원, 신백아동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정토마을, 진여원,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충주요양원,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충청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시상 후 수상자들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제 1회 충청북도 인권포럼 개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 확산 위한 프로그램 진행

충청북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10일부터 11일까지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회 충청북도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84년 12월 10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권침해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며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충청북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충북인권연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하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행사 첫째날인 10일에는 기념식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70주년 영상 관람과 함께 제1회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인권문화 공연 등이 이루어졌고, 인권토크 콘서트에서는 '우리 삶 속의 인권 그리고 지역'이라는 주제로 김병재 전문MC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피부에 와 닿는 삶 속의 인권이야기를 청중들과 유쾌하지만 진솔하게 나누며 소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저녁 7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충북공무원노동조합 주관으로 도민들과 도청공무원 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시내 영화관(롯데시네마)에서 인권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렇게 첫째날은 도민들과 인권에 대하여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튿날 11일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 등을 찾아가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섹션 Ⅰ에서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인권지표 개발과 적용', 섹션 Ⅱ에서는 충북인권연대 주관으로 '노동인권증진-지역차원의 실천방안 모색', 섹션 Ⅲ에서는 충북하나센터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인권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총 3개의 섹션을 구성하고 인권정책의 기준점이 될 지표개발과 주요 인권현안 등을 관련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82%가 '북한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1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인권현황과 정책'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내 입국 이후 북한출신에 대한 차별(45.4%)받고 있다고 응답하며 차별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하나센터(센터장 김영석)은 제1회 충북인권포럼 섹션Ⅲ으로 북한이탈주민 인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인권 현황과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남대학교 송현욱 교수는"노동권, 사회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인권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맞춤형 정책"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 하였다.

토론자로는 심우찬 교수(대전대학교), 이창호 센터장(청주YMCA푸른나래공부방), 김선미 전문상담사(남북하나재단), 김시연(북한이탈주민-충북대학교병원 간호사), 백운기 사무국장(충북하나센터)이 참여하였다.

충북하나센터(센터장 김영석)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제1회 충청북도 인권포럼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인권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함께 공감하고 이의 확산을 통해 충북에 인권문화가 꽃 피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의 열매' 충북모금회 나눔 캠페인 출범

66억8900만원 목표… 8년 연속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도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청주상당공원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모금에 나섰다.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 총 73일간 도내 11개 시 · 군에서 진행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20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고 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모금액과 같은 66억8900만원이다. 목표액의 1%인 6689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상당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충북은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7년 연속 달성해오고 있다.

올해 시 · 군 순회모금은 ▲12월4일 옥천 · 영동 ▲5일 보은 · 청주 ▲6일 음성 · 진천 ▲7일 충주 · 제천 ▲10일 단양 ▲11일 증평 · 괴산 순으로 진행됐다. 개별 성금은 청주KBS 301-0036-6830-11(농협), 충주KBS 301-0036-6835-91(농협), MBC충북 301-0036-6833-11(농협), CJB청주방송 313-01-148494(농협) 등 지역 방송사를 통해 접수한다.

ARS 060-700-1212로 전화를 걸어 3000원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 전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된다.

모금된 성금은 노인과 아동 · 청소년, 여성 · 다문화, 장애인, 위기가정 등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회장 김광홍)가 1억4000만원을, ㈜충북소주(대표 조성호)가 58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청주시 4년 연속 지역복지평가 '우수'

민관협력 · 자원연계분야 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행복네트워크 ·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운영 등 주효

청주시가 지난 10일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민관협력 · 자원연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800만 원을 수상했다.

청주시만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365!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운영, 행복네트워크 운영, 통합사례관리 거점기관 운영)를 구축하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청주시는 지역복지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7월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지역(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으로 선정돼 타 지자체에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5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했으며, 미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확대를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와 지역 복지문제 해결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2019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음성보건소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음성군 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도입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음성군 보건소(소장 김홍범)는 지역 어르신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 불편 등으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에 의료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음성군은 79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일반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경로당 주치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주민 호응이 높다.

특히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방문진료로 경로당별 연 6회 양 · 한방 진료를 진행하여 어르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료상담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보건소에서는 삼성서울병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 3개 시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단양 · 음성 · 충주〉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 · 급여별 폐지 확정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서 사전 신청 접수

충북도내 3개 시군(단양,음성,충주)은 내년 1월 완화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 · 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 확정에 따른 사항이다.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생계 · 의료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될 예정이다. 수급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양군은 지난 13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진천, 산모 건강관리사업 확대 실시

내년부터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만족시 소득기준 불필요

출산일 60이내 신청… 태아 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진천군보건소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본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나 10일 진천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사업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진천군 관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인 청주YWCA 진천돌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진천군 관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교육 수료 후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보건소관계자는 "사업의 확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계적 치매 예방 · 관리 맡겨주세요"

단양군,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 전문의 상주 진료

쉼터·검진실·상담실 구비… 환자 가족 교육 · 상담도

단양군이 13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단양읍 수변로 83(구 사회복지회관) 위치에 쉼터와 가족카페, 검진실, 교육 · 상담실 등을 갖췄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해 1월까지 정부예산(국 · 도비 84%) 포함해 4억6천250만원을 투입해 구 사회복지회관 1층에 309㎡을 리모델링해 설치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상주하며 상담과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연계,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군 보건소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3천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치매환자 270명의 환자 등록과 치매치료비, 물품, 사례관리 등도 지원했고 치매환자 쉼터와 인지재활프로그램,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 모임 등을 운영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한우 군수를 비롯해 김영주 군의장, 오영탁 도의원, 강규원 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음성 '취업 박람회'서 101명 취업 성공

500여 명 구인 · 구직자 참여… 61개 업체 참가, 구직정보 제공

지난 11월 22일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군이 개최한 '2018 음성군 취업박람회'에 500여 명의 구인 · 구직자가 참여하여 10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61개 업체가 참여해 400여 명의 구직정보가 제공됐다.

그중 30개 업체는 현장에서 채용정보와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일대일 면접을 실시해 51명을 즉시 채용키로 했으며, 50명은 2차 면접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01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노인, 여성 일자리 등 관내 다양한 일자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력서 사진 촬영과 취업 타로관 등 부대행사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천시, 농촌마을 인터넷 보급

정보격차 해소사업… 청풍면 용곡리 14가구 광랜 구축

시 "지속적 사업 추진해 정보 격차 없는 도시 구현할 것"

제천시가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청풍면 용곡리 일원에 광 인터넷시설을 구축했다.

지난 8년 간 제천 관내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지원으로 50가구 미만 행정리 마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인터넷 구축 사업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이나 가구는 여전히 인터넷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의 정보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까지 인터넷 개통이 되지 않은 농촌마을 및 귀농kg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정보 활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통신주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업자(KT 제천지점)와 공동으로 정보용 환경이 제한됐던 청풍면 용곡리 일원 14가구에 인터넷 공급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케이블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인터넷 사용으로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신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정보격차 없는 도시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편집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겸 주필 김 춘 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 복지 '앞장'

진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외이웃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민관협력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각종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 진천읍이 보건복지부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거, 문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소외계층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지원에 민관이 힘을 모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주거 취약계층 8가구에 집수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 민간단체 등에 적절한 재능기부를 연계하는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왔다.

11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품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옐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이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썸플레이스, 참맛식품, 라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엘리스(분평동) ,백설유통 , 홈플러스익스프리스,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복대점), 바누아투, 좋은아침(복대점), 뚜레쥬르(비하계룡점), 던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트(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량칸타빌점, 율량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태환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뚜레쥬르 율량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뚜레쥬르한라점, 뚜레쥬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참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좌르 금천장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궁전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뚜레쥬르 금천뉴타운, 따베오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찐빵,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뚜레쥬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덕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썹드이십일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괌,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쥬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량점, 청주특팬(주), 무와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신식품, 좋은아침 율량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던킨도너츠 증평점, 엘리퀸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뚜,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불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찐빵, 파리바게트괴산점, 매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뚜레쥬르 엘마트점, 구가네 능이보감,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개(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후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뚜레쥬르(김홍욱), (주)벤엘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던킨도너츠(금왕),
(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뚜레쥬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찐빵, 김수항, 델리퀸(이월점), 에스앤푸드,
지해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델리퀸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뚜레쥬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링게,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잎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승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빠리바게트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변화하는 사회, 충북도 일자리 창출 방안은?

● 91회 충북 사회복지포럼

"수요 맞춤형 일자리 개발 일자리,생산성 기준 아닌 분배 기준에서 고민돼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11월 28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비전 2040(2017)에 의하면 충청북도 도민들은 충북이 해결해야 할 미래 도전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교육 문화 여가 등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충청북도에서도 취약 계층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해 도-농 상생 생산적 일자리 확대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에서는 사회변화 속에서 양질의 근로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사)일하는공동체 박종효 대표는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를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에서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이미 기존의 취업 알선, 정보의 제공 등은 총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생산성이 기존이 아닌 분배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로는 함창모 연구위원(충북연구원), 오경숙 본부장(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김현진 교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준석 사무국장(행동하는복지연합)이 참여하였다.

기능성 신발 '건강 기부'… 한파 녹인 따뜻한 마음

㈜지지코리아 충북사회복지협에 신발200켤레 후원

㈜지지코리아(대표이사 이향숙)는 4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에 풋젠 기능성신발 200켤레(4천만원 상당)를 후원하는 '풋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강나누기 「풋젠 기능성신발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지지코리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및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신발을 기부한데 이어 이번에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능성신발 200켤레(4천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기부받은 풋젠 기능성신발 200켤레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및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충북도내 저소득가정에 배분 될 예정이다.

이향숙 대표이사는 "도내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강나누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회장은 "겨울을 앞두고 도내 저소득 가정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 ㈜지지코리아의 기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기초연금 우수지자체… '장관상' 영예

체계적 이력관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

영동군은 7일 2018년 기초연금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및 사업실적점검 결과, 업무협조 등 기초연금 전반에 대한 결과에 따라 광역 시도 각1개, 기초 시군구 8개소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단독노인가구 2만~25만원, 부부노인가구 2만~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영동군은 기초연금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매월 생일도래자와 기초연금 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신청가능대상자를 수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과 협조하여 마을별 출장으로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군의 노력에 힘입어, 11월말 기준 영동군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1천752명으로 노인인구 1만4천340명중 81.9%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기초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청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노인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군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의미가 깊다.

군 관계자는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기초연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영동군, 취약층 통계공표

복지정책 선도적 역할… 노인 · 수급자 등 구체적 현황 파악

영동군이 사회 복지 정책 수립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의 기초 행정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2차 영동군 취약계층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공표했다.

취약계층통계는 충북도내 최초로 2016년 영동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사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작성됐다.

이번 2차 통계 보고서는 3월 31일 기준(항목에 따라 다름)으로 취약계층의 인구수 · 주택 · 토지 · 건축물 · 복지 · 고용 · 건강에 대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7개 분야 149개 항목이 수록돼 있다.

군은 기존의 온 · 오프라인 질의응답을 통한 통계조사 방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통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달 30일 최종 공표했다. 이에 따라 조사에 따른 개인의 응답 부담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과 복지 정책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완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올해로 두 번째인 영동군 취약계층 보고서가 각종 복지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영동군이 맞춤형 복지를 수행하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질 높은 통계자료가 발간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시각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실시

저렴한 수수료… 최대 89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시각 장애인들도 쉽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증평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서비스, 키패드, 점자라벨, 큰 화면 보기 등의 기능을 추가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충족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서비스는 음성 안내에 따라 키패드와 화면 조작이 가능하며, 이어폰으로 자세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전 · 지폐 투입구, 지문 인식기 등 주요조작 부분에도 점자라벨을 부착하고 키패드에도 점자를 마련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변은수 증평군민원과장은 "군민이 언제든 필요할 때 발급할 수 있게 무인민원의 편리함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카드결제 서비스도 추가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렴한 수수료로 최대 8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증평군에는 군청 민원실과 읍 · 면사무소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있다.

괴산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협의회, 이웃사랑 실천

농산물 기부 · 배식봉사 등

수익 지역사회 환원 '훈훈'

괴산군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협의회가 지난 7일 괴산군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농산물을 기부했다.

괴산군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협의회가 지난 7일 괴산군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농산물을 기부하고 어르신을 위한 배식봉사를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개 사회적기업과 6개 마을기업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들은 자체 생산한 300만 원 상당의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냉동 옥수수, 쌀과자 및 부식 등을 괴산군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 직접 배식봉사에도 나섰다.

이도훈 협의회장은 "노인복지관 물품 기부 및 배식봉사는 매년 괴산군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협의회에서 추진해 온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협의회는 지난 2013년 8월 구성, 괴산고추축제 시 홍보 · 판매장 운영과 함께 괴산 움직이는 농부시장인 '문전성시'를 연중 개장하는 등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부문화 확산… 보은 착한업소 2 · 3호점 탄생

어려운 주민 위한 나눔 실천

㈜화신 · 다나와컴퓨터

착한업소 현판 전달식 가져

보은군 보은읍은 지난 9일 '착한기업'현판을 ㈜화신에 전달하였다.

보은군 보은읍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나눔사업이 지역 기업의 참여 속에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보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원영 · 이월봉)는 ㈜화신(대표 김경민), 다나와컴퓨터(대표 이상현)와 각각 '착한기업', '착한가게'약정을 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보은지역 '착한기업'은 3곳으로 늘었다.

지난 5월 한주농장(대표 김응주)이 착한농장으로 첫 등록한 후 2호점과 3호점이 한꺼번에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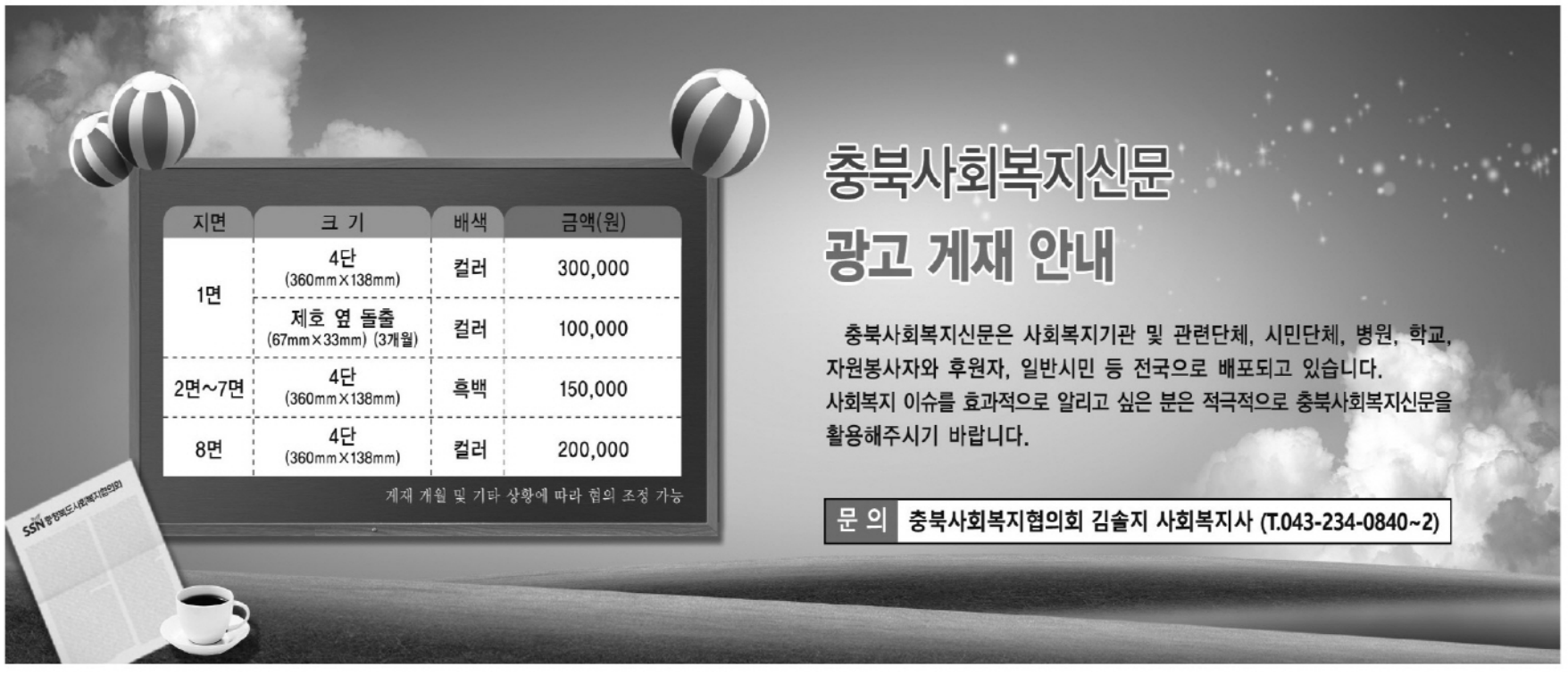
보은읍 장신리 소재 ㈜화신은 올 7월부터 사원들과 함께 이익금의 일부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다나와컴퓨터는 지난 11월부터 기부 실천을 통해 온기 가득한 보은읍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김경민 화신 대표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다나와컴퓨터 대표는 "기부를 통해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좋아you 모금'은 개인, 가게, 기업 등이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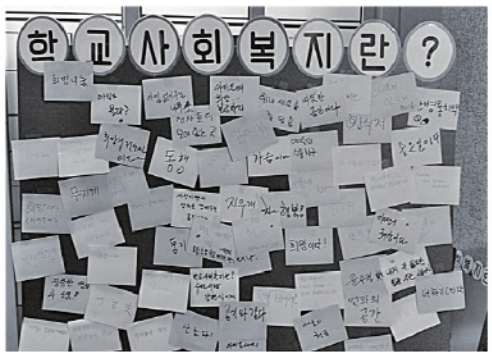
기부받은 돈은 보은읍에 사는 홀몸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최원영 보은읍장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기꺼이 수입의 일부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착한기업, 착한가게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학교 사회복지 분야에 범위 확대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83년 5월 사회복지사 1·2·3급 제도 도입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이는 국민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등 위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자격제도를 마련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와 보건·의료 돌봄·복지 정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균형인사지침' 개정… 9급 경력경쟁 저소득층 구분모집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해 온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전 직렬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이 출장 갈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전·조리·방호·우정 등 기존 일부직렬에만 적용하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도 없애기로 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내년 9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법'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적용하며 시행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이용률 14.2%)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푸드뱅크 정보' 서비스 제공

한국사회복지협, 이용자·기부자 정보 등 8개 데이터 오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은 1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푸드뱅크 정보'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우리 사회의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분야 물적 자원 전달체계다.

푸드뱅크 통계데이터 개방사업은 양질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부물품의 효과적인 모집방안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추진됐다.

푸드뱅크 정보는 누구나 공동데이터포털에서 이용자, 이용시설단체, 기부자, 물품접수현황, 물품제공현황, 선호물품정보, 푸드뱅크센터정보 등 8개 분야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소개와 이용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운영실적 통계를 지역별,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정외택 푸드뱅크사업단장은 "푸드뱅크 정보 데이터 개방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푸드뱅크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 개발과 기부물품 모집 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 학생 인권침해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인권위,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대상 조사

특수학교 교사와 학부모 절반 가량이 중증 장애 혹은 중복장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학교 관리자 87명·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1급 또는 2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졌거나 3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학생 중 중증 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8천1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 수준이다.

조사 결과,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장애 차별을 항목별로 보면 폭력(구타·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로 나타났다. 언어폭력(놀림·비하·욕설)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있다고 답했다. 따돌림 같은 괴롭힘은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등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 현실적 대안이 없는 학교 보건 실태,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안전시설, 가정에 의존하는 통학 지원체계,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인력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는 분야는 의료적 지원이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피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2018년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비상연락망·보고체계 → 응급상황 선제적 대응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게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 민 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우리들의 아름다운 송년의 밤 *"Thanks to all for you"*

'충북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지난 7일 S컨벤션서 열어
유대관계 형성·소통의 장

충북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충북사회복지사 송년의 밤'을 7일 S컨벤션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 이하 충사협)에서는 올 한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력한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우리들의 아름다운 송년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제5회 충북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행사를 7일 청주 S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올해 5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해동안 충북 복지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형성,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회원 응집력을 확대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각 분야 현장에서 고생한 모범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지사 및 도의장 표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여해 사회복지사상(미래복지개발원)이 수여되었으며, 충사협에서 2016년부터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충북 사회복지사 대상'은 진성노인전문요양원 이재석 이사장에게 수여 되었다.

'충북 사회복지사 대상'은 실천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25년 이상)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회복지사를 발굴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는 포상이다. 이어진 2부에서는 실천현장에서의 고충을 나누며 회포를 풀고,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만찬의 자리를 마련했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이원기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 한해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충북지역 곳곳에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했다."며 "우리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전국의 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하여 단일임금제와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복지 세미나 개최

저소득 재가노인·독거노인 삶의 질 연구 토론·발표

사)충청노인복지개발회(공동회장 남기민·조명희)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공동으로 주관하여 6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18회 노인복지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는 지난 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7~8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번 제18회 노인복지세미나에서는 '고령사회와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독거노인, 일반 재가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토론 및 발표를 진행했다.

'저소득 노인이 인식한 이웃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미정 부장(청주가경노인복지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남현정 연구원(충청노인복지개발회 노인복지연구소)'재가노인의 삶의 질 실태와 그 영향 요인'김기정 명예교수(서원대학교)의 발표를 진행 후 토론으로 황혜원 교수(청주대학교), 홍석호 교수(청주대학교), 박현주 관장(흥덕시니어클럽)과 함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황청일 명예교수(청주대학교)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통일 한국의 길'이라는 특강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제 18회 노인복지세미나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노인의 삶의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순회 캠페인 진행

아동학대 조기 발견·신속 대처… 11월 20~23일 활동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경희)은 2018년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11월 19일~ 25일)에 14개 공동참여기관과 함께 시·군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처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며, 활동내용은 아동학대예방 국민감시단 약속, 아동권리 인식조사, 아동권리놀이 및 공동참여기관의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 17일 청주를 시작으로 20일, 진천, 22일, 음성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주, 제천, 단양에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영동, 옥천, 보은, 괴산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3일 증평을 마지막으로 시·군 순회 공동캠페인의 막을 내렸다.

참여기관은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천경찰서,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천군드림스타트, 증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평군드림스타트,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음성경찰서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10일 제천 청호주류 본사에서 제천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돕기 위해 키다리아저씨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저소득 아동 위해 뭉친 '키다리아저씨'

제천·단양지역 업체 대표들, 결연후원 등 펼칠 예정

제천·단양지역 업체 대표들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키다리아저씨'로 변신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10일 제천 청호주류 본사에서 키다리아저씨 위촉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위촉식에는 박상철 청호주류 대표, 김근영 ㈜대양물산 대표, 장현수 ㈜대진종합주류 대표, 박연조 ㈜우진종합주류 대표, 김부영 오비맥주 충주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제천·단양지역 아동들을 위한 결연후원과 연말연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원정대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상철 청호주류 대표는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을 꿈을 키워 지역 인재로 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난 4일 '독거노인 사랑 나눔의 장' 행사서 수료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진상)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 행사에서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발굴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독거노인보호사업 중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부문 전국 80개 수행기관 중 우수 수행기관 7곳에 포함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복지관은 지난 2015년 열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최종평가대회'에서 전담인력 사회복지사가 우수실무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받은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한 번 단체의 이름으로 수상을 함으로써 전문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편,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의 경감,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여 지역 내·외의 모범 사례로 손꼽혀왔다.

남성 독거노인 위한 '생명숲100세 힐링센터'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충주시노인복지관서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

충주시노인복지관은 11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원하는'생명숲100세힐링센터'개소식이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조길형 충주시장, 이상희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장, 김용 충주시노인복지관장,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명숲100세힐링센터는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종로, 서울 성북, 충북 청주, 부산, 대구 달서, 대구 중구에 이어 일곱 번째로 문을 열었다. 충주 생명숲100세힐링센터에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간단한 밑반찬 만들기, 휴대폰 사용교육 등 일상생활 자립과 신체·정서적 건강,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충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만7028명으로 2015년 23만533명에 비해 1만6495명(7.2%)이 늘었으며 2013년 노인 인구 구성비가 14%를 넘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1인 노인 가구가 140만명을 넘어서면서 여성에 비해 자립생활이 힘들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한 남성 노인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충주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통해 충주지역 남성 독거노인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남성 독거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자립 기반이 취약하고, 사회적 단절 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며 "많은 남성 노인들이 참여해 이웃과 어울리며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 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리더양성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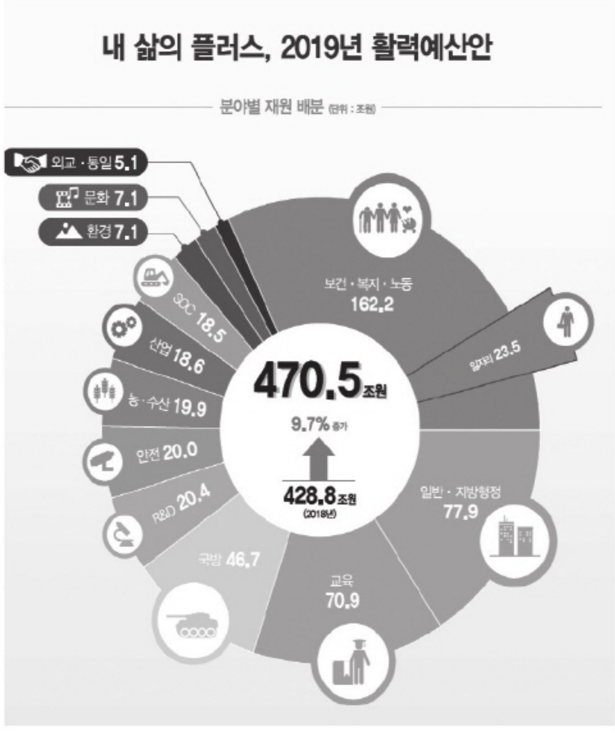
1. **참여대상** – 충북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2. **사업기간** – 2018. 11. 1 ~ 2019. 8.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통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함
4. **프로그램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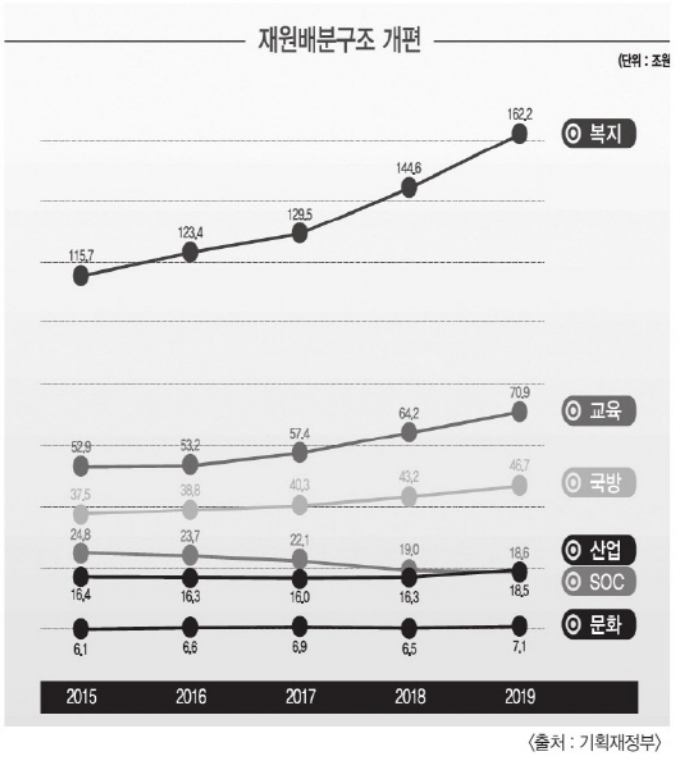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호스피스교육	미술치료	웃음치료	의사소통교육	안전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30명/1회기	35명/1회기	40명/1회기	1그룹(10명)/9회기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임미정 사회복지사 T. 043)234-0840
6. **지원** – 사랑의열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50억원 최종 확정





〈출처 : 기획재정부〉

전체 예산, 전년비 14.7% 증가… 사회복지 15.4% · 보건 11.8% 증가
보육 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 노인 소득보장 강화 · 저출산 대응 등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167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아동 · 보육 분야

ㅇ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1조9271→2조1627억 원 +2,356억 원)

ㅇ (보육교직원인건비)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월 20→30만 원)을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1조1759→1조1868억 원, +109억 원)

ㅇ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713억 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소요 반영(88→118억 원, +30억 원)

장애인분야

ㅇ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만 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000원) 등 반영(9,685→1조35억 원, +350억 원)

ㅇ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
(31→52억 원, +21억 원)

노인 분야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장기요양보험(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9,960→1조351억 원, +391억 원)

ㅇ (장사시설)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 (227→440억 원, +213억 원)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 반영(83→86억 원, +3억 원)

보건 · 의료 분야

ㅇ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265→3,284억 원, +19억 원)

ㅇ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 · 행정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

ㅇ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329→355억 원, +26억 원)

ㅁ 2019년 보건복지부 회계별 · 분야별 예산

ㅇ 회계별로 예산은 '18년 대비 19.7%(7조4333억 원↑), 기금은 7.6%(1조9260억 원↑) 증가

ㅇ 사회복지 분야는 '18년 대비 15.4%(8조1304억 원↑), 보건분야는 11.8%(1조2290억 원↑) 증가

< 2019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본예산 Ⓐ	'19년 본예산 Ⓑ	전년대비	
			증감 Ⓑ-Ⓐ	%
총 지 출(A+B)	631,554	725,148	93,594	14.7
◇ 예 산(A)	376,546	450,879	74,333	19.7
◇ 기 금(B)	255,008	274,268	19,260	7.6
◇ 사회복지①	527,747	609,051	81,304	15.4
ㅇ 기초생활보장	100,582	109,000	8,418	8.4
ㅇ 취약계층지원	24,709	28,737	4,028	16.3
ㅇ 공적연금	218,790	237,583	18,793	8.6
ㅇ 사회복지일반	10,976	12,690	1,714	15.6
ㅇ 아동·보육	62,619	81,264	18,645	29.8
ㅇ 노인	110,071	139,776	29,705	27.0
◇ 보 건②	103,807	116,097	12,290	11.8
ㅇ 보건의료	24,373	25,909	1,536	6.3
ㅇ 건강보험	79,434	90,187	10,753	13.5

ㅁ 19년도 주요사업 세부내용

1. 소득보장 강화

ㅇ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소득하위 20% 25→30만 원, '19년4월 시행) 및 지원 대상 확대(517→539만명)

ㅇ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 원, '19년4월 시행)

ㅇ (생계급여) 18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기초연금 수급)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이 있어야 기준 적용 제외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해당)

ㅇ (의료급여)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 원)

*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ㅇ (자활사업)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19년도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 내역신규 포함

사 업 명	'19년	주요 내용
ㅇ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6,393	ㅇ (사업내용)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8개 지역) ㅇ (기대효과)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부담 완화, 삶의 질 및 인권 제고,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안전망 구축 등 기대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5,968	ㅇ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중앙 1개소, 지방 4개소) ㅇ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9,858	ㅇ (사업내용) 보호종료 후 2년 내인 18~24세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19.4월~) ㅇ (기대효과) 보호종료아동(18세 도래 시설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생활비 지원, 자산 형성) 지원
ㅇ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190	ㅇ (사업내용)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공공주거 제공, 전문 사례관리 지원 ㅇ (기대효과)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성공률 제고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28,718	ㅇ (사업내용) 돌봄서비스, 학습형·체육형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2500명, 월88시간 제공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4000명, 월44시간 제공 ㅇ (기대효과)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포용 증진
ㅇ 공공의료인력기관 양성구축	300	ㅇ (사업내용) 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 ㅇ (기대효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보건의료를 이끌어 갈 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별·계층별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접근권 보장
ㅇ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3,100	ㅇ (사업내용) 권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10개소)으로 지정하여 권역-지역-보건소-병의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ㅇ (기대효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 통합 도모
ㅇ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3,916	ㅇ (사업내용)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지원(250개소) ㅇ (기대효과) 열악한 환경개선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의욕 고취, 양질의 믿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ㅇ 자활장려금	38,837	ㅇ (사업내용)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000명 대상, 월평균 21만 3,000원 지급 예상(최대 38만 5,000원) ㅇ (기대효과) 자활근로 참여 근로빈곤층의 소득 인상 기여 및 근로유인 제고
ㅇ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9,600	ㅇ (사업내용)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1,200개소) ㅇ (기대효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돌봄기관으로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기반 마련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지원	3,000	ㅇ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체험실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60개소) ㅇ (기대효과) 실내놀이체험실 지원으로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
ㅇ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	255	ㅇ (사업내용) 성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강사 양성 등(중앙 1개소, 지역센터 17개소) ㅇ (기대효과)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이해 도모
ㅇ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4,400	ㅇ (사업내용)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17개 시·도, 2,000개소) ㅇ (기대효과)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수준 확대
ㅇ 장애인거주시설LED 교체지원	2,155	ㅇ (사업내용) 장애인거주시설의 LED 교체지원(230개소) ㅇ (기대효과) 장애인 시설 서비스환경 개선,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ㅇ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250	ㅇ (사업내용)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창소사업지원을 통해 종합적 사회서비스사업 모델개발(7개소) ㅇ (기대효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강화 및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향상
ㅇ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1,100	ㅇ (사업내용) 청년층 대상 정신·신체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17개소) ㅇ (기대효과)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2. 사회적 가치 투자

ㅇ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 ·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8개 시군구) ※ ('19년) 64억 원 (신규)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 ※ ('19년) 60억 원 (신규)

ㅇ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ㅇ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

3. 노인 · 장애인 · 아동

ㅇ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 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 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ㅇ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

* 사회적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 · 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 1만 2,960원, 20.4%), 이용자 수 증가(7만 1000명→8만 1000명)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ㅇ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4000명) 신규 지원

ㅇ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 · 보수비 신규 반영(1,200개소)

ㅇ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240명) 및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880명)

4. 저출산 대응

ㅇ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

ㅇ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 · 예술 · 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추가 확충

ㅇ (영유아보육료) '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

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원장 1.8%, 교사 2.3%)

5. 공공의료 확충

ㅇ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 ('19년) 5억 원 (신규)

ㅇ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 반영

ㅇ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6. 보건의료 보장

ㅇ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 증액

ㅇ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 · 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

ㅇ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ㅇ (국가예방접종)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ㅇ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하며, 결핵예방관련 국제공조(STOP-TB 운동본부) 강화

ㅇ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 ※ ('19년) 33억 원 (신규)

〈출처 : 보건복지부〉

칼럼 Column

"세심한 복지는 인간존엄성 최후의 보루"

박 상 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장발장'은 19년간 감옥에 갇혔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일꾼 살조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을 연상케 하는 생계형 범죄가 시대를 초월해 우리 주변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한 마트에서는 30대 남성이 2만 5천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그는 새해를 맞아 떡국이 먹고 싶어 절도를 저질렀다.

광주에서는 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은 50대 아버지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9만9천원 상당의 겉옷을 훔쳤다가 경찰에 잡혔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양복을 사 입으라고 20만원을 줬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 집세를 내기 위해 옷을 훔쳤다고 한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안타까운 일이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낳은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푼돈'을 훔쳐 불잡히는 절도 범죄가 급증 추세였다.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 실적은 2011년 1만563건에서 지난해 1만4천81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3만9천566건에서 5만1천551건으로 32%,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11만2천486건에서 12만3천225건으로 17% 늘었다.

1만원 이하의 절도범이 대폭 증가한 것은 극빈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9일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식당에서 손님의 카드를 훔쳐 먹을 것을 산 20대 가난한 청년도 신문에 보도됐다.

오죽하면 이런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안타까움 마음이 들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감형은 될지언정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빵과 음료수등 아무리 사소한 절도도 반복되면 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빈부격차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작년 10월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천947만 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중에는 뼈 빠지게 일해도 한달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허다하다. 반면 서민들의 빚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 3월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19개 신흥국 중 3번째로 높았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요즘처럼 기업구조조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거나 빚내서 장사하다가 폐업하면 먹고살기가 힘들다.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이런 케이스다.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한창 일할 나이인 2040세대뿐 아니다. 노년층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고령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 셋 중에 한명은 먹고살기 위해 일터에 나가야 한다.

인생의 황혼을 안락하게 보내야 할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처럼 지독한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을 일본에선 '하류노인'이라고 한다.

하류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

수입이 거의 없고, 저축해둔 충분한 돈이 없으며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고령자는 자력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질병과 사고, 가족 문제나 간병 문제, 나아가 범죄와 같은 여러 위험요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물론 대다수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전기요금 등의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액수도 적고 1회성에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양극화가 심하고 암울한 사회에선 생계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을 위한 더욱 세심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이유다.

현장의 목소리

무엇보다 값진 말 한마디

신 찬 호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얼마 전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를 읽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할 때는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하여 말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다룰 줄 알았던 책에서 행동, 글, 말 등 인간의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풀이되었으며, 에피소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

이곳을 청소해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소소한 문장들과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에피소드들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큰 일화는 아니지만 소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일상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이기주 작가에게 공감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이처럼 공감하고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 라는 물음에 고민 없이 '아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랐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받지 말고 따라가면 안된다! 조심해야한다! 라고 배우는 어린 시절, 점수를 매기기 위한 교육과정, 다양한 방법의 사기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라왔고, 그에 따라 의심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당연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써 3년이란 시간이 이러한 가치관을 바꿔게 된 전환점이라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사회복지사로써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며 큰 도움이 되려나?", "어르신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가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지게 된 후까지도 항상 어르신들께서는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덕담해 주시는 어르신', '항상 바쁘다며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어르신',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서 건네주시는 어르신', '저보다 한참은 연장자이지만 선생님, 사회복지사님 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는 어르신' 등 변함없는 많은 어르신들의 표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좋은 소리가 아닌 쓴 소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실 때에는 당황도 많이 하고 어쩔 줄 몰랐었던 저이지만 하나씩 기관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저를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갔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저를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소리와 쓴 소리 모두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어르신들의 관심과 표현이라는 걸 알기에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인생의 선배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친구들도 수시로 느끼는지 걱정해주던 친구들은 웃으며 저에게 말해주고는 합니다.

"사람들과 서슴없이 대화하는 모습과 더불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힘내!", 라며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3년차……, 지금가지 성장한 것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에게 또는 누군가가 가지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쓰는 기회를 통해서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칼럼 Column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연 헌 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18년도 유행어 중 하나는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라고 여쭈어 보고 싶지만, 소확행을 하기 위해 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정신건강 질환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입원보다 외래에서, 병원급 이상 기관보다 의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 불면증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177만 명(2016년 대비 5.9% 증가), 내원일수는 2,294만 일(2016년 대비 0.4% 증가), 진료비는 1조 4,317억 원(2016년 대비 2.6% 증가)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수는 9만 4천 명(2016년 대비 6.1% 감소)이고 외래 환자 수는 172만 9천 명(2016년 대비 6.2% 증가)으로 외래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령별 질병별 환자 수는 19세 이하에서 '운동과다장애'가 4만 5,7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에서 '우울에피소드'가 48만 5,87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0세 이상에서 '조현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많아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30~69세에서는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상위권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등의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치료의 고무적인 것은 입원 환자 비율이 줄었고 외래 환자 비율이 늘었다는 점, 큰 병원에 가는 것 보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면서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고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다한 현 상황에서 이 점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모두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될 2018년도 통계는 더 나빠졌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말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2018년을 정리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며칠 남지 않은 2018년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함에도 정부도 국회도 사회도 모두 싸움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합니다.

12월 15일 뉴스 한 토막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도계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내코가 석자인데 기부는 무슨…"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잡아두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저도 책상 위에 가득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 일도 가득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12월 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속지 않으려 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에…

여러분은 2018년을 그럭저럭 잘 보냈고 다가오는 2019년도 잘 맞이 할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속지 않으려 합니다.

잘 보냈고 다가오는 2019년도 잘 맞이 할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않아도…

이 달의 법률상식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강아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아지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반려동물은 마치 가족과 같이 지내고 주인에게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물건'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됩니다. 반려동물이 다쳤을 때 만약 위와 같이 일반 물건과 같이 평가하게 된다면 오직 강아지 분양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과 달리 사람처럼 실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 물건의 경우 물건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애완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애완동물과 애착관계에 있던 주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이 직접 스스로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 주요내용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불가/사회복지사 3급란 삭제
3. 시행일 : 2019년1월1일
4.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① 개정법령 적용 대상 :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자

② 변경내용 :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날~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③ 시행일 : 2018년4월25일

④ 개정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⑤ 개정후 :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참고 : http://cbasw.or.kr/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안내 · 참가자 · 참여기관 모집

■ 대상 : 도내 돌봄종사자
■ 목적 :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 권익향상에 기여,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 돌봄서비스 향상
■ 내용 : 미술치료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의사소통교육, 웃음치료, 안전교육, 호스피스 교육, 소모임 개발 · 지원프로그램
■ 진행일정 : 2018년 12월~2019년 7월
■ 신청기간 : 2018년 12월~모집 완료시까지
■ 비용 : 무료
■ 지원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임미정 사회복지사(043-234-0840)
■ : 참고:http://www.cwin.or.kr/

[푸르메재단]2019 장애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19년 2월~11월
■ 신청기간 : 2018년 12월4일~2019년 1월11일
■ 지원대상 :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부모 중 한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지원내용 : 교육비(학업을 위한 교육)/1인당 최대 200만원/10개월/40명(신규30명, 연속10명)
■ 신청방법 :
①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개인 신청불가/재단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②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의료기관 등
③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
■ 참고: http://www.welfare.net/

[푸르메재단]2019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2019년2월~2019년11월
■ 지원대상: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 · 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중 · 고생(2019년 기준)
■ 신청기간:2018년12월4일~2019년1월11일
■ 내용: 학업 교육비, 최대 200만원, 최대 10개월, 53명(신규43명, 연속10명)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담당자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지원금 관리 가능 기관)
-지원금 수령 ·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식은 재단홈페이지 (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문의: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선임간사 (02-6395-7010 / shj0923@purme.org)
■ 참고: http://purme.org

[미래에셋박현주재단]2019 미래에셋 메이커 플레이 캠프 참가기관 모집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이용 초등학생 4학년~6학년(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드림스타트 등)
■ 일시 : 2019년 2월18~19일, 2019년 2월21~22일, 2019년2월26~27일
*주요 권역에서 총3회 진행
■ 지원내용 : 캠프 소요 비용 일체(숙박, 교통,식사,체험비 등)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메이커 체험 활동
-1박2일 캠프/메카니즘을 활용한 로보틱스 메이킹 워크숍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제출 2019년 1월11일까지
*신청 기관별 최소 5명~최대 10명
■ 심사발표 : 홈페이지 공고 · 개별 연락 2019년 1월18일 금요일 16시
■ 문의 : 브레이너리메이커스 (070-4686-4999)
■ 참고 : https://foundation.miraeasset.com/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9년 교통사고 유자녀 기아드림 장학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 · 중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자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도 수혜가능
■ 지원규모 : 초등학생(1,800,000),중학생(1,800,000),고등학생(2,400,000) 대학생:2,3년제(3,000,000)/대학생4년제(5,000,000)
■ 지급시기 : 2,8월 지급(예정)
■ 접수기간 : 2018.12.11(화)~2019.1.18.(금) 18:00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사회복지기관,지자체 등)추천을 통한 온라인접수 · 원본서류, 우편접수
■ 접수서류 :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02-2077-3965)
■ 참고 :https://docs.google.com/

자원 봉사자 모집

▶ **도서정리 및 독서도우미 봉사**
관리센터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86-2088

▶ **행정업무보조**
관리센터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39-8900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60-8200

▶ **업무보조**
관리센터 : 충북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843-1515

▶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855-1090

▶ **시설 봉사**
관리센터 : 로뎀나무요양원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857-1101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아름다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73-3456

▶ **경로식당 주방보조 및 배식봉사**
관리센터 : 현양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66-0957

▶ **말벗 및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대신노인요양원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66-0825

▶ **혜원! 봄! 청소년 합창단 지원**
관리센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95-2505

▶ **편의 정서지원**
관리센터 :청주시립요양병원
활동기간 : 18.12.1 ~ 19.1.31
전화번호 : 043-220-80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청주금빛봉사공연단, 어르신들 위한 예술 · 공연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청주금빛봉사공연단(단장 이세균)은 지난 11월 29일 예미담요양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술 ·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청주금빛봉사공연단은 2017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노인시설에서 예술 · 공연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청주금빛봉사공연단 이세균 단장은 "봉사자들의 전문적인 재능으로 어르신들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요양 보호사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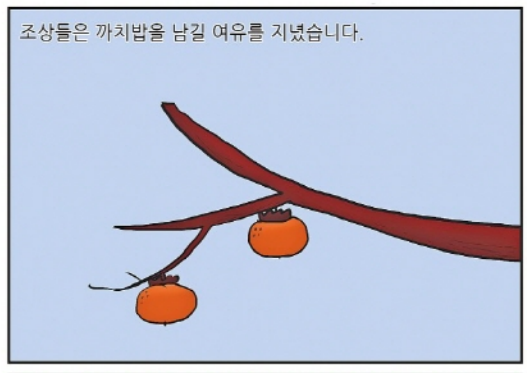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인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

위촉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wss@chol.com)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만/평

까치밥

이창신 www.bokmani.com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길 줄 아는 지혜와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